

# 대학생들의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Sensation Seeking Tendency on Sports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심윤식, 조욱연  
서울대학교

Yunsik Shim(yunsikshim@gmail.com), Woogyeon Jo(woogijo@sn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체육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각추구성향과 스포츠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감각추구성향의 개인적인 특징이 스포츠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 교양체육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302명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성별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체육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감각추구성향은 스포츠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사회적만족, 정서적만족, 신체적만족, 환경적만족, 교육적만족 등의 요인과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감각추구성향의 요인 중 전율과 모험추구가 교육적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 경험추구가 교육적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 중심어 : | 감각추구성향 | 스포츠만족도 | 대학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sensation seeking tendency and sports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and analyze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ensation seeking tendency on sports satisfaction. A total of 302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ensation seeking tendency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had statistical relationship with social stratification, emotional satisfaction, Physical satisfaction, environmental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Second, thrill and adventure seeking among sensation seeking tendency factors affected more male students' educational satisfaction than female students'. And experience seeking affected more female students' educational stratification than male students'.

■ keyword : | Sensation Seeking Tendency | Sports Satisfaction | College Students |

## 1. 서론

스포츠에 참가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 자신감, 스트레스 해소 등은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신체적 혹은 정

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시 위주의 억압된 고등학생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이나 소비적인 여가에 참여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기존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동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24][34].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은 단순히 스포츠에 참가하여 만족감을 얻는 것 외에도 스포츠에 대한 매력감이나 심리적 애착심을 바탕으로 스포츠에 대한 강한 몰입(flow) 경험이 수반될 때 즐거움이 더욱 높아진다[16]. 일반적으로 몰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러한 쾌감이나 만족감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자극 수준이 최적의 상태가 됨을 의미하며, 이는 신체적·사회적·법적·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이 추구하는 감각이나 경험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37]. 이렇듯 개인이 추구하는 다양하고 새로우며 복잡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학자들은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 Tendency)”이라고 한다.

감각추구성향은 성격을 이루고 있는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설명[31]과 함께 자극의 최적수준이론을 바탕으로 체계화되었다.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각성은 선호되는 적절한 수준이 있으며[29], 지나친 자극은 뇌에 부담을 주고 너무 작은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추구한다고 하였다[33]. 따라서, 감각추구에 있어 재미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자극을 증가시키면 이를 탐색하려는 인지적 활동이 나타나고[27],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의 차이로 인해 높은 감각추구성향을 가진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주위환경과 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32]. 따라서 감각추구성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환경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각추구에 대한 반응이 개인마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25].

감각추구성향은 Zuckerman, Kolin, Price 그리고 Zoob[37] 등에 의해 감각추구척도(SSS, Sensation Seeking Scale)가 개발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후 30년간 감각추구성향은 SSS의 6개 형태와 ZKPQ(Zuckerman-Kuhman Personality Questionnaire) 등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문항수에 의한 측정시간과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감안하여 SSS 5번째 질문지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 질문지의 경우 전율과 모험추구(TAS, Th

rill & Adventure Seeking), 경험추구(ES, Experience Seeking), 권태민감성(BS, Boredom Susceptibility), 억제에서 벗어남(DIS, Disinhibition)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마다 감각추구의 개인차를 묻고 있다. SSS는 국내외에서 심리학, 의학, 범죄학, 의류학, 청소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각추구성향을 묻는 도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18], 체육학 분야에서도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동기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일례로, Ewert와 Hollenhorst[30]는 모험스포츠 참여에 대한 모험스포츠모델을 제시하였고, 모험스포츠참여와 지속에 관한 모형[35]과 모험스포츠참여자들이 높은 진율과 모험추구성향(TAS)을 나타낸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6]. 국내에서는 SSS의 타당도 검사를 시도한 연구[22], 감각추구성향이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대변한다는 연구[13][15][21], 감각추구성향이 운동 지속참가의 내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7][8][16]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체육학에서 감각추구성향 연구는 모험스포츠를 즐기는 특정집단 연구와 건강운동에 참여하는 일반집단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감각추구성향 연구 등과 같이 보다 깊이 있고 다차원적인 연구진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무엇을 채운다는 의미를 우리는 “만족(satisfaction)”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다. Cambell[28]은 만족을 목표나 욕구를 달성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라고 하였고, 국내에서도 만족을 일차적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상황과 실제로 향유하는 상황간의 격차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열망과 성취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6]. 따라서 만족의 개념적 모델이나 이론들은 개인의 요구, 선호, 필요, 야망, 기대와 관련된 실행과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족의 의미가 광범위하고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23].

국내에서 진행된 스포츠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의 의미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으며[19], 이를 스포츠에 대입할 경우 스포츠와 관련된 구성원이 운동상황이나 과정에서 얻게 되는 욕구나 동

기, 관심과 열의, 애착 등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수[4]는 스포츠만족도를 보상, 전문성 신장, 인정 지위, 인간관계, 훈련 환경 등에 대한 선수 혹은 참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수준이라고 하였으며, 이철화[20]는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상황에 비취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스포츠만족도 연구는 지도자유형이나 리더십에 따른 선수들의 만족도를 보는 연구[14][17], 운동선수의 성격 요인 및 자기관리와 관련된 연구[4] 등과 같이 엘리트 스포츠에 국한된 선수들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여가만족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1][2][12] 이와 연관이 있는 건강운동 참여자들의 스포츠만족도도 아울러 조사되었다[3][9][11]. 하지만, 운동만족도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에도 건강운동에 참여하는 특정집단의 심리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양체육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감각추구성향과 스포츠만족도의 객관적인 개념을 질문지의 구성타당도를 통해서 알아보고, 여기에서 나타난 감각추구성향의 개인적인 특징이 스포츠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운동선택이나 지속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신세대들의 감각추구성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교양체육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D시 소재 'K'대학교 132명의 학생과 S시 소재 'S'대학교 학생 170명 등 모두 30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학년, 주당평균 운동시간과 관련된 기본 정보는 [표 1]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특성	집단	인원	주당평균 운동시간	계
학교	S대학	170명	2.39	302명
	K대학	132명	2.71	
성별	남	233명	2.72	
	여	69명	1.91	
학년	1학년	27명	2.56	
	2학년	108명	2.51	
	3학년	61명	2.75	
	4학년	106명	2.43	

## 2. 측정도구

### 2.1 감각추구성향

대학생들의 감각추구성향은 유진, 강필중[18]이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감각추구성향은 전율과 모험추구(TAS, 7문항), 경험추구(ES, 9문항), 권태민감성(BS, 6문항), 억제에서 벗어남(DIS, 6문항) 등 4개요인(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감각추구성향 질문지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CEFA 3.02프로그램으로 1차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02개의 자료 중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51개였으며, 추정방식은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s)을 사용하였다.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Target 로테이션을 사용한 결과, 각 요인별 부하량이 4.0이하인 전율과 모험추구(TAS) 1번 문항, 경험추구(ES) 11번, 13번, 16번 문항, 권태민감성(BS) 29번, 31번 문항, 억제에서 벗어남(DIS) 18번, 27번 문항 등 총 8문항이 제외되었다. 남은 20문항으로 2차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chi^2$ 검증 결과 자유도는 116,  $\chi^2$ 가 166.907로 영가설을 기각하였지만, RMSEA값이 .054로 만족할 만한 모형적합도를 보였고,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표 2]과 같이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한 151개의 자료를 제외한 새로운 표본 151개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그 결과 자유도 164,  $\chi^2$ 가 292.212로 영가설을 기각하였지만, 모형적합도 값이 CFI(.808), TLI(.778), RMSEA(.072)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 내적일관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감각추구척도 요인부하량 및 내적일관성

	TAS	ES	BS	DIS	$\alpha$
TAS (6문항)	.56	.20	.08	.02	.826
	.59	.03	.02	.12	
	.77	-.10	.04	.06	
	.45	.16	.11	.00	
	.53	.11	-.11	.02	
ES (6문항)	.14	.58	-.05	-.07	.634
	.06	.70	-.01	-.05	
	.14	.49	-.12	.02	
	-.04	.48	.17	.12	
	-.16	.40	-.07	-.03	
BS (4문항)	.00	-.17	.61	-.11	.593
	.09	-.11	.62	.03	
	.05	.06	.44	-.03	
	-.03	.15	.59	.12	
DIS (4문항)	.06	-.06	-.02	.70	.670
	-.16	.03	.10	.50	
	.03	.18	.12	.44	
	.08	-.17	-.18	.52	

2.2 스포츠만족도

대학생들의 스포츠만족도는 김영재[10]가 개발한 한국형 여가만족척도를 스포츠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스포츠만족척도는 사회적만족(6문항), 정서적만족(5문항), 신체적만족(5문항), 환경적만족(4문항), 교육적만족(4문항) 등 5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감각추구성향 질문지 분석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만족도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302개의 자료 중 151개를 대상으로 1차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Target 로테이션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별 부하량이 4.0이하인 신체적 만족 15번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23개의 문항으로 2

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자유도가 148,  $\chi^2$ 은 242.387로 영가설을 기각하였지만, RMSEA값이 .065로 만족할 만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고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나타났다.

표 3. 실패공포 척도 요인부하량 및 내적일관성

	사회적 만족	정서적 만족	신체적 만족	환경적 만족	교육적 만족	$\alpha$
3 문항	.56	.11	-.04	-.03	.13	.884
	.87	.10	-.11	.00	.01	
	.89	.01	-.02	.06	-.09	
	.73	.02	.13	.03	.01	
	.63	-.04	.15	.05	.03	
	.52	.22	.12	-.04	.07	
3 문항	.13	.63	.09	-.05	.06	.898
	.24	.52	.04	.11	.03	
	.10	.74	-.01	-.07	.06	
	.19	.53	.18	.08	.02	
	-.07	.76	.13	.04	.05	
2 문항	.06	-.10	.91	.03	-.01	.890
	-.18	.19	.99	.00	-.08	
	.21	.10	.42	-.03	.15	
	.24	.09	.40	.09	.17	
5 문항	.12	-.12	.00	.83	.01	.925
	.02	.03	-.04	.96	-.11	
	-.05	.01	-.03	.85	.01	
	-.12	.05	.10	.71	.15	
5 문항	.01	-.08	.05	-.03	.79	.891
	.05	-.22	.10	-.01	.94	
	-.07	.14	-.08	.02	.77	
	-.05	.39	-.11	.11	.47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지 않은 151개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자유도는 220,  $\chi^2$ 가 428.811로 영가설을 기각하였지만, 모형적합도 값인 CFI(.921), TLI(.909), RMSEA(.080)값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 내적일관성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CEFA 3.02프로그램과 AMOS 18.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질문지의 타당도를 살펴보았으며, 다중회귀분석과 위계회귀분석으로 감각추구성향이 운동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감각추구성향과 스포츠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위계회귀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라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의 4가지 가정인 잔차의 정규분포성(normality of the error), 잔차의 선형성(linearity of the error), 잔차의 독립성(independence of the Residuals) 그리고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 III. 결과

#### 1.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감각추구성향과 스포츠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4]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 5개 요인 모두를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율과 모험추구는 사회적만족, 정서적만족, 신체적만족을 통계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경험추구는 스포츠만족도 5개요인 모두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민감성은 사회적만족 요인에서만 통계적 관련성을 보였고, 억제에서 벗어남 요인은 5개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남녀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환경적만족을 제외한 4개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별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 검증

앞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감각추구성향의 4개요인 중 스포츠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율과 모험추구요인(TAS)과 경험추구요인(ES)이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율과 모험추구×성별, 경험추구×성별 등 2개의 조절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만족도 5개 요인 중 교육적만족에서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판단근거는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의 설명량(R<sup>2</sup>)과 투입전 1단계의 설명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2단계의 각 조절변수 a×c, b×c의 기울기가 통계적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	종속	사회적만족			정서적만족			신체적만족					
		Beta	부분 상관	R <sup>2</sup>	Beta	부분 상관	R <sup>2</sup>	Beta	부분 상관	R <sup>2</sup>			
전율과 모험추구	경험추구	권태민감성	억제에서 벗어남	성별D	.144*	.143	.16***	.159**	.154	.118***	.208**	.200	.115***
					.286***	.274		.227***	.216		.162**	.155	
					-.113*	-.122		-.077	-.081		-.105	-.110	
					-.049	-.053		-.050	-.052		-.006	-.006	
					-.150**	-.161		-.112*	-.118		-.112*	-.118	

독립	종속	환경적만족			교육적만족			VIF			
		Beta	부분 상관	R <sup>2</sup>	Beta	부분 상관	R <sup>2</sup>				
전율과 모험추구	경험추구	권태민감성	억제에서 벗어남	성별D	.063	.059	.043*	-.009	-.009	.085***	1.174
					.133*	.123		.260***	.241		1.199
					-.042	-.042		-.070	-.073		1.021
					-.070	-.070		-.018	-.018		1.029
					-.113	-.114		-.141*	-.145		1.010

\*p<.05, \*\*p<.01, \*\*\*p<.001 ※ 성별D: 남자(0), 여자(1)로 코딩됨.

표 5. 조절효과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종속 독립	교육적 만족		
		Beta	R <sup>2</sup>	ΔR <sup>2</sup>
1단계	전율모험추구(a)	-.009	.085***	
	경험추구(b)	.260***		
	권태민감성	-.070		
	억제에서 벗어나	-.018		
	성별D(c)	-.141*		
2단계	a×c	-.583*	.109***	.024*
	b×c	.904*		

\*p<.05, \*\*p<.01, \*\*\*p<.001 ※ 성별D: 남자(0), 여자(1)로 코딩됨.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전율과 모험추구, 경험추구의 연속자료를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성별과 교육적만족에 대해서 상호작용 그래프를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전율과 모험추구가 교육적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그림 2]에서는 경험추구가 교육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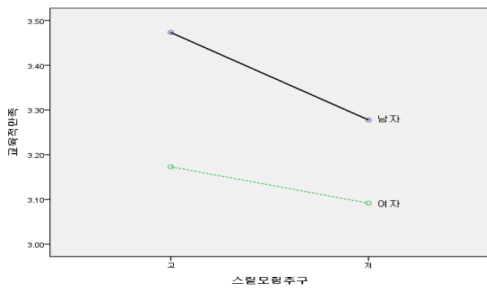


그림 1. 교육적만족에 대한 전율과 모험추구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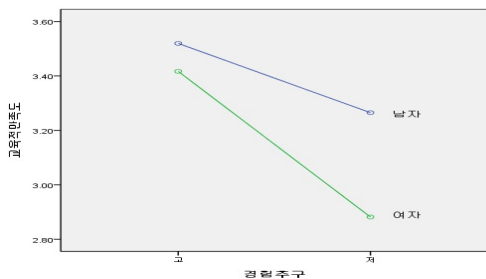


그림 2. 교육적만족에 대한 경험추구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양체육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각추구성향과 스포츠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감각추구성향의 개인적인 특성이 스포츠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감각추구성향에 따라 스포츠 참여종목을 예측하는 연구[15]나 건강운동의 참여 정도에 따라 감각추구성향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16] 등을 살펴보면, 감각추구성향은 운동참가자들의 종목선택이나 운동지속과 관련된 몰입(flow)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추구성향이 개인의 스포츠만족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양체육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감각추구성향은 사회적만족, 정서적만족, 신체적만족, 환경적만족, 교육적만족 등 5개 요인 모두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험추구(ES)는 스포츠만족도 5개 모든 요인과 통계적으로 관련성을 보였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원하는가를 묻는 전율과 모험추구(TAS) 요인은 사회적만족, 정서적만족, 신체적만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복해서 행하는 것과 관련된 권태민감성(BS) 요인은 사회적만족 요인에서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억제된 감정에서 벗어나 비교적 강도 있는 일탈내용이 담긴 억제에서 벗어나(DIS) 요인은 스포츠만족도 요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교양체육을 선택해서 실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즉, 새로운 스포츠를 배워보고 싶다는 경험추구 내용이나 좀 더 활력 있는 스포츠활동에 참가하고 싶다는 전율과 모험추구 요인은 스포츠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반복하는 것과 관련된 권태민감성이나 일탈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싶은가를 물어보는 억제에서 벗어나 요인은 스포츠만족도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교양체육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감각추구성향은 스포츠만족과 전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험추구요인과 진율과 모험추구요인에서 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의 4개요인 중 스포츠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진율과 모험추구요인, 경험추구요인은 토대로 성별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녀차이는 교육적효과에서만 보였으며, 진율과 모험추구가 교육적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 경험추구가 교육적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교육적만족성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간접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회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따라서 남학생들은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이 진율과 모험을 추구하는 활동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교육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감각추구성향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교육적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 시절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수동적인 체육활동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덜 활동적이면서도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성인이 되면서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모두 외국에서 만들어진 척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사용한 것이다. 감각추구성향 질문지의 경우 Zuckerman 등[37]이 사용한 감각추구척도의 5번 형식을 유진과 강필중[18]이 한국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고, 스포츠만족도 질문지는 Beard[26]와 Ragheb과 Griffith[34]가 개발한 여가만족척도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보면, 감각추구성향의 경우 유진과 강필중[18]이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나 28개 문항 중 8개 문항이 삭제되어 사용되었고, 스포츠만족도는 기존 Beard[26] 등이 개발한 척도와 비교해서 요인수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고 문항수도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미국 백인 중산층을 기준으로 만든 질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철저한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신뢰도 검사나 타당도 검사를 완벽하게 거쳤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요인이나 문항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어떤 척도를 올바르게 사용하느냐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비교문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을 앞으로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소통을 강조하는 현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감각추구성향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라 생각된다. 좀 더 자극적이고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찾는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스포츠라는 명제로 채워줄 수 있다면, 스포츠학을 전공하는 학자나 일선지도자 혹은 전공자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콘텐츠가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류와 내부의 심리적인 요인을 적절히 엮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임이 자명하다. 교양체육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감각추구성향이 스포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스포츠라는 콘텐츠는 더욱 새롭고 흥미롭고 교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감각추구성향과 종목별 스포츠만족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건강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내적동기나 운동지속과 관련된 연구에 적용하였을 경우 더 많은 지식창출과 운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1] 강주한,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여가만족도와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 박호근, 생활체육 참여자의 여가만족과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응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3] 권희성, 헬스클럽 회원의 참여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북북부지역 비영리 헬스클럽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 김경수, 운동선수의 가정환경과 경기력, 운동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5] 김동진, 김재운,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여가활동 선호유형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제1호, pp.787-796, 2001.
- [6] 김명균, 운동선수가 지각한 리더십 행동이 팀 응집력, 운동몰입, 운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7] 김병준, 운동심리학의 이해와 활용, 서울: 무지개사, 2006.
- [8] 김분도, 수영과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각성추구와 정서와 스포츠 몰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9] 김수연, 성인여성의 휘트니스 참여 동기와 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0] 김영재, “대학생들의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5권, 제2호, pp.197-204, 2004.
- [11] 김재원, 휘트니스의 퍼스널 트레이닝 참여만족도가 재등록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2] 김종규, 광주지역 중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3] 박동규, “임스트립 스포츠 참여와 감각추구성향, 운동몰입 그리고 스포츠사회화와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2권, pp.1227-1239, 2008.
- [14] 박미경, 여자체조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에 따른 운동만족도와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5] 서종훈, 고등학생의 각성추구 성향에 의한 스포츠 참여종목 예측의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6] 소영호, “생활체육참가자의 참가정도와 감각추구성향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8권, 제3호, pp.21-36, 2007.
- [17] 심상철, 핸드볼 지도자의 지도행동 유형에 따른 선수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8] 유진, 강필중, “한국형 감각추구척도의 타당도 검증과 스포츠 참가 예측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pp.249-264, 2003.
- [19] 이명원, 다이빙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과 운동만족도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0] 이철화, 도시 기혼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 동기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21] 장영대, 모험스포츠와 일반스포츠 참여에 따른 운동정도와 감각추구성향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22] 정용각, “한국형 각성추구척도의 통계적 검증: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05-128, 2002.
- [23] 황문수, 성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24] 황선환, “대학생의 여가활동으로서 스포츠 미디어 선택요인이 인터넷 스포츠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3호, pp.244-251, 2008.
- [25] J. Arnett,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16, No.2, pp.289-296, 1994.
- [26] J. G. Beard and M. G. Ragheb,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2, pp.20-33, 1980.
- [27] D. E. Berlyne,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New York: McGraw-Hill Book, 1960.
- [28] A. Cambell,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31, pp.117-124, 1976.
- [29] E. L. Deci, Intrinsic Motivation. N.Y: Plenum Press, 1975.
- [30] A. Ewert and S. Hollenhorst, “Testing the Adventure Model; Empirical support of a model of risk recreation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1, No.2, pp.124-139, 1969.
- [31] H. J. Eysenck, General features of the model, In: A model for personality, Berlin: Springer,



1981.

- [32] A. Mehrabian and J. A. Russell,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Cambridge: MIT Press, 1974.
- [33] P. S. Raju, "Optimum stimulation level: Its relationship to personality, demographics & exploratory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7, pp.272-282, 1980.
- [34] M. G. Ragheb and C. A. Griffith,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4, pp.295-306, 1982.
- [35] D. Robinson, "A Descriptive model of enduring risk recreation involv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4, pp.52-56, 1992.
- [36] E. Slanger and K. E. Rudestam, "Motivation and Disinhibition in High Risk Sport: Sensation Seeking and Self-Efficac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31, pp.355-374, 1997.
- [37] M. Zuckerman, E. A. Kolin, L. Price, and I. Zoob, "Development of a Sensation 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28, pp.477-482, 1964.

조 옥 연(Woogyeon Jo)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졸업
- 2008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 강사

<관심분야> : 스포츠 정책, 스포츠 사회학

#### 저 자 소 개

심 윤 식(Yunsik Shim)

정회원



- 2011년 5월 : 유타대학교 Exercise & Sport Science 박사졸업
- 2011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시간 강사

<관심분야> : 운동참가 및 지속 동기, 스포츠심리학